

소외계층의 삶 다룬 '검은 소설'

폭력·섹스·마약이 주요 소재... 국내 작품에도 검은소설의 성격 등장

황병하

광주여대 교수·창작문학과

검은 소설은 20세기 후반 소외계층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소설 장르를 일컫는다. 검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가능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폭력·섹스·마약이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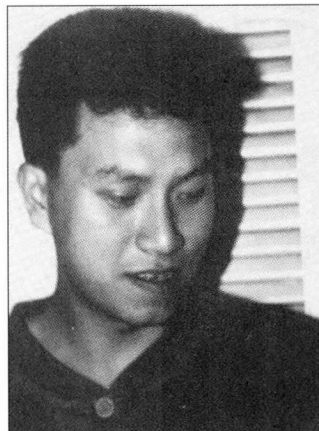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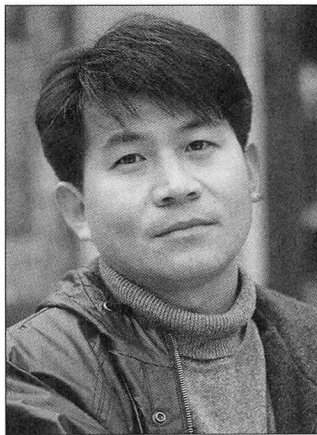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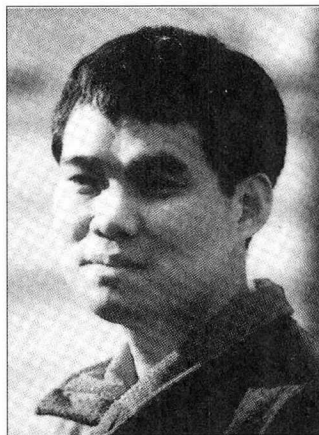
'검은 소설'은 20세기 후반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 장르를 일컫는 말이다. 이 장르는 소외를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구태여 명칭을 붙이자면 존재론적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서구의 느와르 필름이나 홍콩 느와르에서 기존의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소외양식을 보아왔다. 그렇다고 전에는 없던 소외계층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뜻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기왕에 있었던 검은 시대의 인물들이되 단지 그들에 대한 인식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소외계층에 새로운 접근

소외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란 우선 소외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관점과 구별된다. 소외계층보다 사회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하급계층(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여)은 항상 대부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종교적·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소외계층은 선도·교화·동정·처벌·격리의 대상이나,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소외계층은 목소리를 제거당한 사회의 토대로서 전복과 회복, 이상향과 세계완성의 주체이다.

그런데 영화 <레옹>의 킬러나 홍콩 느와르의 수많은 주인공들에서 볼 수 있듯 검은



작품을 통해 '검은 소설'의 실례를 보여준 작가들. 위쪽 왼쪽부터 장정일·성석제·백민석·송경아씨.

소설의 영화적 대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영화(느와르 필름)에 나오는 소외계층은 위의 어떤 범주에도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

그들은 종교적·윤리적 판단의 대상도 아니며, 마르크스주의적 세계 변혁에 대한 인식은 커녕 오히려 더욱 부정적으로 자본주의 적인 편이다. 느와르 필름이나 검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가능하는 가장 결정적인 고리가 폭력·섹스·마약·돈임을 보라.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전히 부정적인 반응만을 일으키도록 만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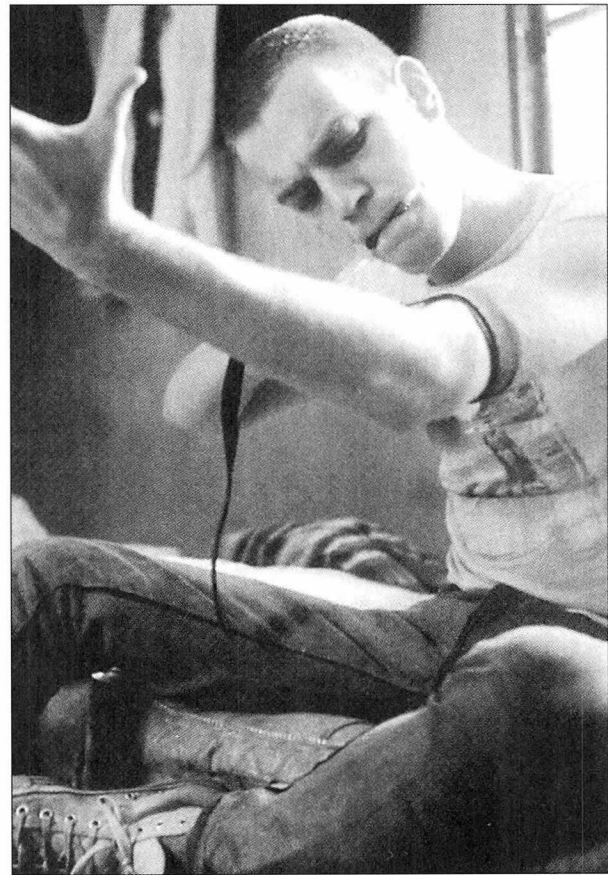
즉, 표피적 사회환경 속에서는 악의 화신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생존의 토대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검은 소설은 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든 네 요소 중 섹스와 돈은 그 자체로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계층과 관련하여 이들 두 요소가 '검게' 비쳐지는 것은 그들이 그것들

로부터 소외당해 있어 사회적 준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사회가 정해 놓은 소위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방법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폭력이다. 따라서 어쩌면 폭력은 바로 그들의 처참한 절대적 생존양식일지 모른다.

폭력과는 달리 마약은 이중적 관점에서 소외계층에게 보랏빛 꿈으로 다가온다. 마약이 불법인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끊이지 않는 이상, 더구나 원치 않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중독자로 끌어들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마약만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마약은 그들에게 돈과 섹스를 안겨다 주지만 역으로 소외에 대한 자기파괴적 보상, 즉 보상 아닌 파멸 또한 가져다준다. 마약을 파는 사람은 그 자체가 마약중독자로서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영화 <트랜스포터>의 한 장면.

이처럼 돈과 섹스, 폭력과 마약은 소외와 보상 희구라는 사회병리적 순환체계 속에서 난미를 이루며 검은 소설의 치명적 구심을 점하게 된다. 물론 구미의 검은 소설에 거의 접해 있지 않은 우리들로서는 느와르 필름이 이 장르를 이해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영화의 전통적 생리상 느와르 필름은 그러한 '검은 인물'들을 어느 정도 영웅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소설 장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내 문학작품에서도 가능성 보여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검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낮선 천국>을 놓고 몇몇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을 검은 소설로 분류한 데서 유래한다(필자는 이미 지난해에 <흑맥주>라는 소설을 발간하면서 같은 뜻의 용어인 흑색소설이라는 장르 명칭을 붙였다). 영어의 'black novel'이라는 용어를 국역한 것인데, 그렇다고 <낮선 천국>이

광활한 초원에서 벌어지는 삶과 죽음

《아프리카 동물기행》을 읽고

채인선 · 동화작가

전에 우리의 소설에서 검은 소설의 실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가 바로 장정일·성석제·백민석·송경아 등이다.

물론 검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직 구체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의 소설을 검은 소설로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몇몇 작품에서는 앞에서 명시한 검은 소설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명백하게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기이하게도 이들 작가 모두 지지부진한 한국소설의 담보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대주들이라는 점에서 흑 검은 소설이 한국소설의 새로운 지평 위에서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견조차 가져보게 만든다.

첫 소설 〈아담이 눈뜰 때〉로부터 최근작 〈내게 거짓말을 해 봐〉에 이르기까지 장정일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은 축소되어 있는 감이 있으나 모두 사회적 소외에 방기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장정일 특유의 풍자적 회화 속에서 그로테스크하게 변신된 일종의 검은 인물들이다. 성석제의 소설은 다양한 주제들을 섭렵하고 있고 서정적 색채가 짙어 모두가 검은 소설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3.5초〉(경우야), 그리고 그의 장편소설 등은 검은 소설적 성격을 명백히 내장하고 있다.

송경아와 백민석의 경우는 소외된 성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헤침으로써 또다른 지층에서 검은 소설의 광맥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아마 검은 소설의 측면이 지엽적이 아닌 상당히 포괄적 형태로 개진되어 있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낮선 천국〉일 것이다.

물론 구미에서 수입된 사조의 하나인 이 검은 소설이 꼭 우리의 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긍정적 방향의 하나일 이유는 절대 없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몇몇 소설가들로부터 그러한 검은 소설의 기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평적 관심을 주의깊게 투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다. ❖

여름은 가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하루하루 더위를 견디며 사람들은 몸을 움그리고 여름을 보낸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 어느 그늘진 곳에 드러누워 저녁이 될 때까지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사자들의 무리처럼 말이다. 해질녘이 되면 사자들은 일어나 어슬렁거린다. 먹이를 잡으러 나가고 샘물을 찾아 목을 축이고 자기 구역을 순찰한다.

《아프리카 동물기행》(크레이그 패커/장동현)을 읽으며 막연히 꿈꾸고 알고 있던 정글이나 초원에 대해 많은 것이 사실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거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식의 '발견'이다. 이 책은 독특한 기행문이다. 1991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여러 지역, 세렝게티, 옹고로고로, 이루샤, 고펜, 키고마 등지를 오가면서 이 책의 저자인 야생동물학자 크레이그가 이끄는 일군의 연구자들이 벌인 연구관찰기행이다.

크레이그의 예민하고 관찰자적인 눈은 초원을 돌아다니는 동물들뿐 아니라 탄자니아의 당시 생활상, 인근 부락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행태 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는다. 아프리카 여인들의 울긋불긋한 천연색의 옷차림이 주는 들뜬 분위기, 막 민간에 전염되기 시작한 서구병, 국립공원의 동물을 밀렵해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렇게 밀

저자의 예민하고

관찰자적인 눈은 초원을

돌아다니는 동물뿐 아니라

탄자니아의 당시 생활상,

인근 부락민과 관광객들의

행태까지 놓치지 않는다.

술한 생명체의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

그곳의 순환은 지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하리라.



채인선씨.

종되는 동물들,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덩어리가 되어 서서히 멸종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나에게도 엄습한다.

크레이그는 1972년 이래, 동료이자 아내인 앤 피지와 함께 영장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사자들의 공동체 생활의 수수께끼이다. 무엇이 그들을 묶어주는지, 무엇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는지, 왜 낯오자를 그토록 철저하게 배척하는지, 그것이 어떤 암흑과 같은 본능에서 나온 의지인지 아니면 고차원적인 깨우침인지.

모든 연구는 다시 그 시발점으로 회귀한다. 그의 영장류 연구도 역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그 사람(연구자 역시 사람이므로)의 시선에는 세렝게티의 베란다에서 로즈메리향을 음미하며 아프리카 광활한 초원을 굽어보던 '그들

함'이 담겨 있다. 술한 생명체들의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 한 생명이 죽으면 다른 생명이 태어나 빈 자리를 메꾸고, 모든 동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정확히 생명의 질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균등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 인간이라는 종족이 '이기심'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곳의 순환은 지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그는 인간의 암흑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 동물의 본성과 똑같이 내재하는 암흑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경쟁과 불필요한 이기심까지 섞여 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생존이 아닌 이유로 동족살인을 저지르는 유일한 종족"이라는 프로이트의 말이 생각난다. 동물이 자기 종족을 쫓아내거나 물어죽이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이다.

숫사자가 다른 새끼를 돌보고 있는 암사자를 위협하고 그 새끼들을 물어죽이는 충격적인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 무자비함에 경악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번식을 위한 것이고 번식은 곧 초원에서의 생존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일종의 암흑이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종류의 암흑을 꿰뚫어 한단계 고양된 공동의 선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

가람기획/A5신/374면/9000원

